



## 개 짓는 소리

가끔씩 역사를 돌아보고 뉴스를 듣게 된다. 온갖 사건들의 연속이다. 그중에서도 철천지원수 관계가 눈에 들어온다.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대책이 없다. 카르타고와 로마가 그러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가 그러하다. 발칸반도는 1,2차 세계대전의 화약고였다. 아니, 모든 대륙에서 원수들이 서로 으르렁거린다. 이는 비단 민족의 문제만은 아니다. 종교는 더 심각하다. 콜럼버스는 오스만제국을 지도상에서 없애기 위하여, 곧 로마 교황과 중국 황제가 양동작전을 펼칠 목적으로 항해를 하지 않았던가? 근·현대사회의 이념 문제는 어떠한가? “민족과 종교와 이념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라는 성가가 생각한다. 예루살렘이 평화와 거리가 먼 것처럼 정말 용서와 화해도 인간 능력 밖의 문제일까? 오늘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날이다. 대안이 없는데 필자가 이에 대하여 입을 열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법을 모르겠다!”

그래도 마이크를 잡았으니, 잠시 떠들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 성령이 이층방에 들어왔을 때를 떠올려 보자. 장면을 유심히 보고 있노라면, 마치 그리스도께서 묻힌 무덤처럼 보이지 않는가? 그런데 그 속에서 움직이는 생명들이 보인다. 그 옛날 죽은 왕과 함께 순장된 살아있는 자들처럼 말이다. 키에르케고르의 말대로, 사실 그들은 살아있는 시체와 다를 바 없었다. 하여, 그들이 모인 이층방은 아담이 숨은 나무였고 요나가 도망친 고래 배 속과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어두컴컴한 무덤에 모였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어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러자 무덤의 어둠이 “밝은 어둠”으로, 곧 생명을 탄생하는 “어미의 자궁”으로 변한다. 용서하라는 말씀(힘)을 받은 까닭이다. 성령은 알렉산더 대왕의 칼날이 되어 온 존재를 퐁퐁 뚫고 있던 속박의 밧줄을 끊어낸다. 그 힘은 앙상한 가지에 스며드는 봄별과 같다. 이제 무덤에서 빛이 새어 나오고, 슬픔에서 기쁨이 솟구치고, 죽음에서 생명이 피어난다. 용서가 부활이고, 용서함이 부활 체험이다. 화해가 생명이고, 화해함이 생명이신 하느님 체험이다.

그러나 “설교자의 말은 결국 위선이다.”(필자의 명언)라는 말이 있다. 용서와 화해는 결코 쉽지 않다.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하다. 신약성경에서 자비는 단지 연민이나 동정심이 아니다. 행위였다. 너의 잘못과 죄를 추궁하지 않았던 아버지, 회개를 요구하지 않은 아버지가 생각한다. 그 말은 첫째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였다.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이나 죄를 보지 않았다. 아니, 생각에서도 없었다. 그저 두 팔로 죄인인 아들이 아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을 껴안았다. 용서와 화해에도 낯춤과 겸손이 필요하다. 동시에 너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곧 십자가와 부활(죽음의 통과)의 자세가 아니고서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입을 열어본다. 화해되지 않고 있는 이 시간이 많은 이들의 기도와 바람을 허무하게 만들지라도 말이다. 그 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으로 의식한다면, 그를 내 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 생각한다면”이라는 이 가정(假)이 실제로 가정이 아니 되도록 살아보자는 것이다(---). 결국 필자의 명언대로, 설교가 정말 개소리로 끝나게 되었다. 용서하시기 바란다.



전동혁 베드로 신부 | 지세포본당 주임

### 주일 진레

- 제 1 독 서 신명 30,1-5
- 화 답 송 © 주님, 흠어진 당신 백성을 모으소서.
- 제 2 독 서 에페 4,29-5,2
- 복 음 마태 18,19L-22

#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골로 3,1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우리 한반도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올해 2023년은 한국 전쟁 정전 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수백만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전쟁은 아직 정식으로 종전되지 않았습니다. 끝내지 못한 이 대결은 지금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에 우리는 평화의 소명을 더 깊이 성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 간의 갈등이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이지만, 요즘 우리는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힘으로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 득세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 훈련도 만만치 않습니다.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던 대화는 중단된 지 오래고, 출구 없는 무력 시위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북 사이의 소통이 단절되어 우발적 무력 충돌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걱정하면서 전쟁 위기마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북한 당국이 채택한 ‘핵 무력 정책 법령’은 이러한 군사적 위기를 가늠하게 하는 하나의 표지입니다. 새로운 법령은 적의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핵 선제공격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의 더 강력한 ‘확장 억제’를 추진하였고, 최근 한미 정상외 ‘워싱턴 선언’ 자체를 ‘안보를 위한 미국의 확실한 약속’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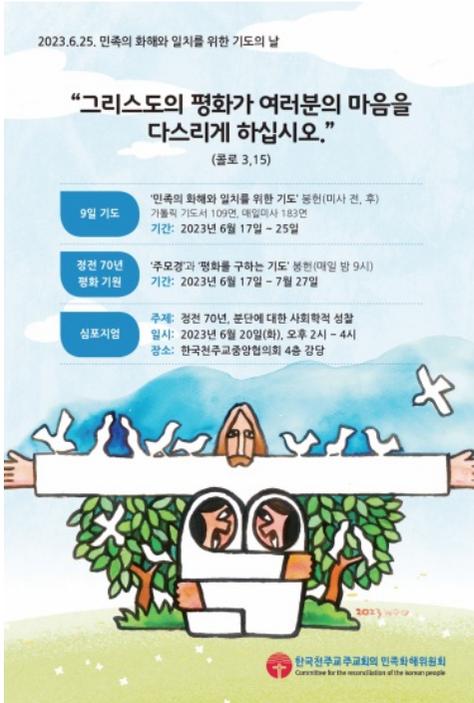
그러나 ‘북 핵 공격 시 미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미 대통령의 약속은 우리의 불안을 더욱 키웁니다. 한번 핵무기가 사용되면 돌이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한미 정상 회담에서 나온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면서 더 강력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힘의 대결은 날로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을 예방하고 군사적 긴장을 낮추려면 진지한 대화를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 멀고 험한 여정일지라도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기”(2코린 5,18)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은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모범처럼, 상대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으며 신뢰를 통하여 참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첨단 무기와 막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진실한 만남과 대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평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되는 지난 2월 24일 이날을 ‘슬픈 기념일’이라고 하시면서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하자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수요 일반 알현 교리 교육, 2023.2.22. 참조).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하였는지 돌아보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특히 “진정한 승리는 폐허 속에서 세워질 수 없다.” 하시며 “전쟁을 멈추고 평화 협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정전 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이하는 7월 27일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는 이 땅의 평화를 기원하는 특별한 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 미사에서 한국 천주교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정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2023년 6월 25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주교



#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소서!

그리스도의 성혈 흡송 수녀회

예수 성심 성월이며 초록의 아름다움이 절정을 이룬 이 달, 산천이 찬란한 햇빛과 푸른 하늘과 부드러운 바람이 가득 넘치는 6월의 마지막 주를 보낸다. 이 같은 활기찬 삶의 터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을 맞는다. 73년 전, 아름다운 이 계절에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다. 한국전쟁은 수많은 국군과 민간이 희생되었고 민족분단 결과로 현재까지 휴전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침략으로 남북이 분단되었고 1948년 정부 수립 후 2년도 채 못 되어 1950년 6.25 전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으로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했고 국토가 폐허 되었다. 올해 6.25 전쟁 73주년을 맞으며 우리나라는 통일을 못 하고 여전히 긴장 상태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다.

예수 성심 안에서 통일의 염원을 예수 성심께 간절히 청하며 기도한다. 오늘은 특히 6.25 동란의 전몰 용사와 모든 순국 영령들을 추모하고 명복을 빌며 우리를 돌아보는 날이어야 하겠다.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유업을 이어받은 우리는 이 땅에 남북통일 과업을 완수해야 할 사명과 국민 화합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전쟁을 치른 후 결과는 매우 참혹했다. 6.25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전쟁이었는지를 전쟁 역사 자료뿐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공포와 두려움 담긴 처절한 경험을 전해 들어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오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귀중한 생명을 조국에 바친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각성해 봐야 할 것이다.

지금도 지구 저편에선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도 요사이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야 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가장 무서운 전쟁은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같은 민족, 같은 형제가 편을 갈라 싸웠던 6.25전쟁, '한국전쟁'은 3년 동안 약 4백5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돼 휴전상태에서 살고 있다. 전쟁은 없어야 한다. 전쟁을 없애려면 국민이 화합해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언제든 외세의 침략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수 성심 성월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를 간절히 기도한다.

지극히 어지신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흡송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중동성당

이준호 라파엘

## 에너지와 싱그러운 기운이 가득한 본당

중동성당의 성전에 오르는 여덟 개의 계단 양쪽 끝에 성 요셉상과 성모상이 대칭을 이루며 서 있다. 성전 지붕 중앙에는 부활의 예수성심상이 사랑과 은총의 두 팔을 벌리고 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성심의 삼각점에서 솟아나는 경건함은 자연스레 묵상과 기도로 이끈다. 중동성당에는 기도 공간으로 안팎이 따로 없다. 저녁 미사 후 바깥 성모상 앞에서는 신자들이 좌우로 줄 맞춰 로사리오 기도를 바친다. 주보성인인 '천지의 여왕 마리아'도 함께하는 듯 모두가 한마음이다. 가지고 있던 묵주를 꺼내어 성모송 한 번을 외며 고개를 돌리면, 공터 옆 파고라 지붕의 십자가 보인다. '사랑채'라는 이름이 정답이다. 넉넉하지 않은 공간을 잘 활용하였다. 앉아서 담소라도 나누며 힐링을 체험할 수 있겠다. 곁에 있는 담장도 있는 듯 없는 듯 낮게 만들어 이웃을 불러들인다. 성당 안에서는 이십여 명의 중고생들이 다음 전례와 행사를 의논하느라 분주하다. 젊은 에너지와 싱그러운 기운이 가득하다. 중동본당은 중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남녀노소 신자들의 수도 많지만, 활기찬 그 분위기에 창원 본당의 중심임을 대변 느끼게 된다.

## 본당 설립 50년에 이르기까지

사무실에서 윤수준 마르티노 사무장을 만났다. 28년째 중동성당의 사무장으로 있다. 대단한 그 이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부친인 윤초삼 루카는 초대 회장이었으며 이후 세 번을 더 봉사했다고 한다. 중동본당의 시작이 궁금했다. '중동본당 50년사'를 넘기며 흑백과 컬러 사진들 속 사연을 물었다. 황해도 진남포가 고향인 윤초삼 루카는 한국전쟁 때 월남하여 서울로 오게 되고 이어 부산을 거쳐 마산으로 온다. 창원에 치과 의원을 개원했던 그가, 미사를 남성동성당에서 보게 될 때, 창원에서 공소 예절을 해보라는 윤공희 주교의 조언을 듣는다. 그때가 1953년. 김외생 막달레나와 윤덕봉 말가리다가 참여했다. 이러구러 공소는 1971년에 준본당에 이어 창원본당으로 승격한다. 1973년에는 본당 봉헌식과 더불어 중동본당으로 개칭하게 된다. 2001년에는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신축성당을 짓고 봉헌식을 한다. 중동본당은 창원의 모태 본당으로서 여태까지 여러 본당을 분가시켰다.



## 성경을 인생 교과서로 삼다

입구 현황판에서 꼬미씨움과 꾸리아의 활동을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제단 옆에 있던 '성경 잔치 최우수본당' 깃발로 눈이 간다. 최근 몇 년간 은총 성경 쓰기, 골든벨, 암송, 필사 등 꾸준히 결실을 거둬 우승 깃발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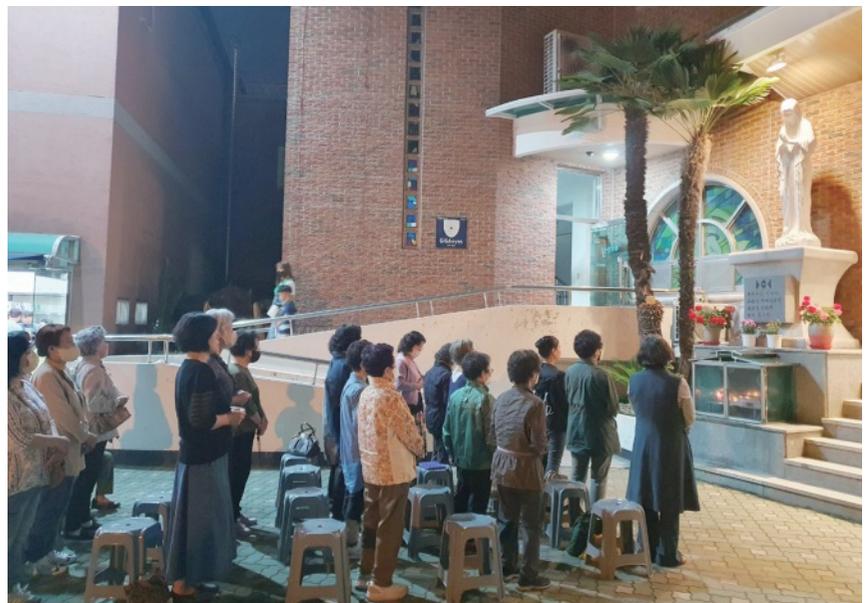
이는 김종필 가브리엘 주임 신부의 사목 지침과도 맥이 통한다. 가브리엘 신부는 2023년을 ‘하느님 말씀으로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표어를 설정했다. 주임 신부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과 방향이 상실된 세상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성경은 인생 교과서라고 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이사 55.2)”라는 구절을 언급하였다. 세상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성경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은 기본이며, 신자들은 미사 전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 그리고 성경 필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성경 통독에 이어 주임 신부의 시편 강의에 50여 명이 함께하였고 곧 요한묵시록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이미 2022년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공동체’로 시작하여 2024년에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지침으로 이어간다. 많은 부언보다 오로지 성경에 집중한 사목 방침의 간결함이 주임 신부로부터 느껴졌다.

아울러 가브리엘 신부는 노후된 비품들을 과감히 교체하고 특히 빔프로젝트를 성전과 지하에 설치하여 강론과 교육, 그리고 행사에 활용하고 있다. 주일미사에는 프로젝트를 이용한 삼차원적인 강론을 통하여 매주 특강을 듣는 기본으로 주일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해 지지부진하던 주일학교에 많은 학생들을 등록시켜 그 숫자가 70명까지 늘었다. 부모들과 신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현재 주일학교는 활기가 넘친다. 다소 침체하였던 성당에 적극적인 사목으로 활기차고 생기 있는 성당으로 변화였다.

### 공동체의 조화와 화합이 강점

이에 더하여 중동본당은 우리농 생활공동체 공로상을 2021년에 수상하였다. 우리농 운동은 생태적 삶을 사는 교회 공동체를 지향하며 땅과 밥상, 사람과 세상, 자연과 생태계를 살리는 생명 농업의 길을 함께 해 왔다. 중동은 2010년에 창립하였다. 잡곡, 다시마, 계란 등 식재료들을 우리농 본부에서 받아와서 화, 목 이틀간 판매하는데, 신자들의 활발한 구매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마산교구 내에서도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다. 농촌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가톨릭 공동체 정신의 구현이라 하겠다.

중동본당은 창원 시내 구역과 북면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북면 신자의 숫자가 40%에 달하며 간부의 수는 더 많다고 한다. 북면은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반세기의 본당 역사에서 늘 함께했다. 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신구의 조화와 화합이 본당의 강점이라 하였다. 어려운 시기와 순간마다 힘을 합쳐 이겨냈다. 외각의 젊은 세대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본당의 아름다운 쉼트에 중요한 부분이며 전체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며 깨어있는 중동성당이다.





기억할 선종 사제  
제찬석(요한) 신부  
2012년 6월 30일

**교구장 서리 등정**  
고성가르멜 여자수도원 원장 선거  
일시: 6월 26일(월) 10:30  
신학생 하계연수 미사  
일시: 6월 27일(화) 11:00  
장소: 산청 자연한방휴양림

**교구/본당**

교구 전례꽃꽂이회 월모임 및 월례미사  
일시: 6월 29일(목) 13:30/ 장소: 교구청  
신앙대학  
일시: 7월 1일(토)~2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교구 성경교육 봉사자 1학기 종강미사  
일시: 7월 1일(토) 14:00/ 장소: 교구청  
2024년도 신학교 지원자 신체검사 및 피정  
일시: 7월 1일(토)~2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위원회/기관/단체**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일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7471-9258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수) 19:30 회원동성당  
창원: 1주(월) 19:3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비대면: 1주(월) 20:00 화상연결  
문의: 윤지령(요세피나) 010-4490-6996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어미사 안내  
일시: 7월 2일(주일) 15:00/ 장소: 남성동성당  
문의: 농아선교회 010-9207-8856

**기타**

2023년 성모술솥 무료 치유대(對)피정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일시: 매월 둘째주 금~주일(2박 3일)  
7월 7일~9일/ 8월 11일~13일/ 9월 8일~10일  
장소: 성모술솥마을/ 문의: 010-3209-3955  
제20차 가톨릭 대안 좋은학교 연수  
일시: 7월 22일(토)~23일(주일) 1박 2일  
장소: 양업고등학교/ 회비: 8만 원  
대상: Quality School에 관심있는 학부모 및 일반인  
접수: 7월 11일(화) 10:00~ 홈페이지 팝업창 선착순  
문의: 양업고등학교 043-260-5076  
※2023년 신입생 입학전형 안내도 겸함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소피정  
일시 및 장소: 중고등부- 8월 7일(월)~9일(수),  
경남 산청 성심원  
·일반부- 8월 11일(금)~13일(주일),  
서울 안토니오 피정의 집/ 접수: 선착순 모집  
문의: 010-6608-3217(성소 담당 신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문의: 국내임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or.kr

**가톨릭 농민회 직원 모집**  
교구 가톨릭 농민회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물류 관리 및 배송 1명  
·홈페이지 관리 및 온라인 쇼핑몰 관리 1명  
접수: 6월 30일(금)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 혹은 E-메일)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보유 자격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통  
주소: 경남 함안군 가야읍 묘사길 291-28(우 52034)  
E-메일: kcfm055@hanmail.net  
문의: 가톨릭 농민회 055-582-7010  
▶면접일자 개별 통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라츠 싱아카데미 합창단 Singakademie Graz 방한 공연 초대**

●일시 및 장소: 1차- 7월 8일(토) 10:30, 성지여고  
2차- 7월 8일(토) 20:00, 용원성당  
●문의: 교구 그라츠자매교구위원회  
055-249-7016



**캄보디아 돈보스코학교 아동들을 위한 후원물품 모으기**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 “인류 가족의 사명으로 새겨진 형제애”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가난한 아동들에게 후원물품 보내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기간: 6월 23일(금)~7월 30일(주일)까지  
후원물품: 피부연고제(후시딘, 세레스톤-지), 칫솔셋트(여행용), 생리대  
접수: 각 본당 사무실  
문의: 교구 평협 055-249-7114, 교구 평협 사무처장 010-3880-4675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 구	6월 26일(월) 19:00	중앙동성당	고해성사 은총의 그릇	문봉한 야고보 신부(대구대교구)		010-5247-9900
진주지구	6월 26일(월) 19:30	신안동성당	하느님의 영	이원태 클레멘스 신부(남해본당 주임)		010-3846-1980
청 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7월 2일(주일) 10:00	서울 본부(동소문로)	korvocation@columban.or.kr	대상: (만)19세~35세
한국외방선교회		최정열 신부 010-4055-5047/ kmsvocation7526@gmail.com		해외 선교 사제를 꿈꾸는 청년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달기잼, 무화과잼, 굴잼, 포도잼 4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힐데갈드 화장품**  
이 화장품은 수녀들이 친환경으로 재배한 허브로 직접 만듭니다

힐데 로션 100ml, 힐데 크림 200ml, 힐데 스킨 100ml, 힐데 비누 60g, 힐데 샴푸 400ml/200ml, 힐데 크림 50ml/20ml, 힐데 크림 150ml/100ml

롯데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문의 010-5117-1160 0502-700-1140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동우 건축 인테리어**  
아파트, 주택 리모델링 및 화장실 시공  
정직한 시공 / 가성비 뛰어난 시공 비용  
일단 부담 없이 견적을 받아 보십시오  
강동주 (세레자 요한)  
010.5053.5393

# 제가 바리사이입니다

이선향 안젤라 아동문학가/ 가톨릭문인회

참으로 가슴 설레며 기다리던 사람들!

코로나 이후 미사 참례하는 교우들의 수는 줄고 새롭게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세례자 수도 줄어들었다. 이런 때에 하느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우리 성당을 찾아온 예비신자들은 얼마나 반갑고 기다리던 소중한 사람들인가? 정말 최선을 다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고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며 잘 대해 주고 싶은 예비신자들의 교리 봉사를 하노라면 그 옛날 내가 떠오른다. 처음 교리를 받으러 성당에 다닐 때, 또 세례를 받고 성당을 처음 다닐 때의 내 눈은 온통 아름다움으로 가득했다.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천사로 보였고 모든 면에서 주님을 닮아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들로 보여서 그 누구를 만나도 마음으로 존경심마저 가졌었다. 그래서 성당에서 하는 일은 모두가 좋게 느껴졌고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이든 내게 수호천사같이 느껴졌었다. 하지만 낯설고 아는 사람이 없었던 시절이었다.

몇 십 년 성당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람도 많고 친근한 사람도 많아졌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성당에 가게 되었고 반가운 사람들이 생겼다. 하지만 나의 눈은 처음 성당에 다닐 때의 그 눈이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왔거나 매우 낮가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지만 전혀 관심이 없다. 오직 내가 아는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느낄 소외감에는 등 돌린 내 모습을 본다. 또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내 잣대의 눈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며 생활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끼리끼리 어울려 지냄으로써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거나 배척하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렸다.

물론 모든 이와 친분을 나누고 모든 이와 다 잘 지낼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제는 눈이 가려져 오직 나밖에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버렸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웃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 내게 예수님을 느끼거나 바라보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와 감각이 사라졌다. 그야말로 발바닥만 열심히 성당에 다니는 종교인이 되어 있었다.

이런 나에게 번쩍 정신을 차리게 하는 일이 생겼다. 내 기준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의 뜻을 여쭙어볼 겨를도 없었다.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나의 기준에서 예의를 너무도 지키지 않는 사람의 등장에 나는 바리사이가 되고 말았다. 그냥 내가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마치 모든 일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았다. 마음으로 끊임없이 단죄하고 판단하면서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가 슬리퍼를 끌고 다니면 예의 없는 무례한 행동이 되었고 만약 어느 수도자가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면 맨발 수도자의 가난이라 여겼을 것이다. 아무리 나 스스로 돌아보며 되돌아서려고 해도 나의 차갑고 이기적이며 교만함은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견잡을 수 없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판단과 생각과 행동, 그 어느 것 하나, 어쩌면 삶 전체가 교만으로 무너지고 말겠다는 마음마저 들었다. 내가 소외시키고 밀어내고 무관심했던 그 대상이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도 모른다. 예수님의 복음을 살아가려면 다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바리사이의 교만에서 벗어나야 하리라. 최종훈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나를 다 잡아 본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하지 말까 할 때는 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쥐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 교구 평협 전반기 연수 실시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담당: 최봉원 야고보 신부, 회장: 최종록 대건 안드레아)는 6월 10일 교구청 1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전반기 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는 신은근 바오로 신부(교구장 서리)의 ‘한국교회사’ 특강을 시작으로 강석중 요한 보스코(교구 평협 생태환경분과위원장)의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최봉원 신부는 총평을 통하여 그간 평협이 열정적이고도 능동적인 활동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 격려하였다. 이날 연수에는 각 본당 회장, 여성부 회장, 교구 산하 제단체장 등 107명이 참석하였다.



# 임금이 없던 시절의 혼란상(판관기 19-21장)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판관기 19-21장은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던 그 시대”라는 말로 시작해서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다.”는 말로 끝납니다. 수미상관법을 활용함으로써 여기에 언급될 이야기가 임금이 없던 시절의 혼란상에 관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야기의 도입부에 등장하는 인물은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나그네살이 하는 한 레위인과 베들레헴 출신의 소실입니다. 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소실은 화가 나서 친정집으로 돌아옵니다. 닉 달이 지나자 남편은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 그 여자의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장인의 극진한 환대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더 머물기를 원하는 장인의 권유로 레위인은 닷새째 되는 날 해 질 녘이 되어서야 길을 떠납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이르자 그의 종은 그곳에서 목자고 제안합니다. 이방인들의 성읍에 머물기 싫었던 그는 기브아까지 갑니다.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고, 성읍 광장에서 그들을 환대해 줄 이를 기다렸으나 그곳의 주민인 벤야민 사람들은 아무도 그의 일행을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그곳에서 나그네살이 하는 한 노인이 그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그들이 노인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있을 때 성읍의 불량한 남자들이 집 주인에게 손님을 내어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자와 재미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재미를 본다’는 말은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든 손님들에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환대와 정반대되는 표현으로 그들을 찾아온 낯선 이를 집단 강간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그런 추잡한 짓을 하지 말라고 말하며, 대신 자신의 처녀 딸과 손님의 소실을 내보낼 터이니 그들을 욕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만, 환대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님을 맞이한 집주인은 손님의 안위까지 지켜주어야 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그의 손님을 해하고자 하며, 집주인은 대신 그의 딸과 손님의 소실을 내어줌으로써 손님을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딸과 소실을 집단 강간하는 것이 레위인을 집단 강간하는 것보다 덜 악한 것으로 여긴 까닭입니다. 하지만 기브아 사람들이 노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레위인은 자기 소실을 내어보냈습니다. 그들은 레위인의 소실을 밤새도록 능욕함으로써 레위인에 대한 그들의 적대감을 최대한 드러냅니다. 결국 아침이 되어서야 풀려난 여인은 노인의 집 문간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다음 날 길을 떠나려던 레위인은 문간에 쓰러진 소실을 발견하고 그 여인을 나귀에 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는 같은 동료 이스라엘을 이토록 적대시한 기브아 사람들을 응징해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여인의 시신을 열두 조각내어 이스라엘 온 영토에 보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에서 보병 사십만 명이 미츠파의 성소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악을 치워버리기 위해 벤야민 지파에게 기브아의 불량한 자들을 넘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벤야민 지파는 이를 거절하였고, 그 결과 벤야민 지파와 나머지 열한 지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벤야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죽고, 림몬 바위로 달아난 육백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열한 지파는 미츠파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아베스 길앗에서 어린 처녀 사백 명을 잡아와 살아남은 벤야민 사람들에게 주었고, 나머지 이백 명에게는 실로의 축제 때 춤추러 나온 처녀들을 보쌌해 가라는 허락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올바른 지도자가 없을 때 그 사회의 약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올바른 지도자는 그 사회의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판관기 전체는 올바른 지도력이 무엇인지를 설파함으로써 사무엘기에서 도입될 왕정을 준비합니다.